

이차전지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

전북대, 전북도·이차전지 선도기업 20곳과 협약 체결... 내년 배터리융합공학과 신설 추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 최초로 이차전지 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와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 4월 2차 전지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5일 전북도 및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SK네슬리스와 대우전자재료(주), 리튬플러스, 비나텍(주), 삼일하이텍(주), 에너비배터리솔루션(주), 에코프로, 이피캠텍(주), 제이디아이(JDI), (주)가온셀, (주)네카터리얼(HPK), (주)에너지11, (주)오디텍, (주)엔플러스, (주)정석케미칼, (주)전보리스, (주)아드리움, (주)한솔케미칼, (주)휴버스연구소, (주)씨에스에너지 등 20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주체들은 전북대에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 설립 추진에 협력하고, 연구 개발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행정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차전지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2)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기업대표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에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북대 진수당 1~2층에 기업 채용설명 부스를 마련, 학생들이 2차전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도내

최초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새만금

을 방위산업과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사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중심의 교육·취업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글로벌 혁신 완성

전북대, 학생 대상 공청회 열어
19일 교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글로벌사업 혁신을 완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학 혁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글로벌캠퍼스30 사업 본 지정 신청을 앞두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앞서 전북대는 지난 5월 단과대학 순회설명회와 학생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먼저, 14일 전대학문화관에서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캠퍼스30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대학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오봉 총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서 백기태 기획처장이 글로벌



지난 14일 전대학문화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캠퍼스30 사업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캠퍼스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전북대가 준비하고 있는 실행계획사안에 담긴 지역·산학협력과 교육 글로벌 혁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학생중심대학 실현과 글로벌캠퍼스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우리대학의 노력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

시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여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오는 19일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어 글로벌캠퍼스30 사업의 본 지정 선정을 위한 본부 의지와 세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청렴 세움 연수

청렴 위케이선 활동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부안 일원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THE 청렴'을 주제로 청렴 세움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청 교사협력과와 교직원수련원 직원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연수는 청렴 위케이선 활동으로 업무 스트레스는 낮추고,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업무 역량은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케이선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의미다.

이번 청렴 워크는 전문강사를 초빙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 등 청렴 교육과 청렴 퀴즈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렴 베케이션(Vacation)은 과거·현재·미래 3층 체험으로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전북미래교육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생활관 축제

'흥와학사제' 성료

전북대학교 생활관(관장 김정자)은 지난 14일 생활관 축제 행사인 '흥와학사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년 만에 재개된 이 행사는 생활관 입주생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 단합을 통해 생활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관 자치위윈회에서 각종 게임을 함께 하며 학생들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또 생활관과 관련된 사진전, 그리고 북면기양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숨을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무대도 마련됐다.

특히, 국제관 코너를 따로 마련해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는 등 생활관에서 세계가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자 생활관장은 "이번 흥와학사제를 통해 그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 학기를 활기있게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교육 관련 유물 찾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유물구입 공고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접수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 구입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유물 구입 목적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입 대상은 전북교육과 일반교육 관련 자료로 조선시대부터 광

복 이후까지의 교육 관련 자료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c.go.kr) 고시공고를 통해 18~25일 이메일(nudia89@jbcu.kr)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접수된 유물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c.go.kr)이나,

교육박물관 설립팀(063-239-318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학교안전지킴이 확대·운영

도교육청, 2학기 72명 추가 배치...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희망 학교에 학생보호호헌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던 것을 학교안전지킴이로 변경하고, 업무도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에 중점을 뒀다.

2학기에 학교안전지킴이 추가 배치를 희망한 72개교에 한 명씩 72명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 배치된 학교 보호호헌은 학교안전지킴이 309명, 사

회복무원 70명 등 총 37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학생보호호헌 배치를 희망하는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별 배치 기준을 마련해 학교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 확대 배치도 향후 병무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외부인 출입 규제 문제는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활동,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학교안전지킴이가 신속히 배치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사례로 살펴보는 생활 속 공무원 범죄

도교육청, 사례집 제작·배포...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 차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품위유지를 위한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5년 수사기록에서 공무원 범죄로 수사 개시 통보된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로 살펴보는 생활 속 공무원 범죄' 예방자료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를 안내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로 통보되는 건 중 92%는 직무와 관련없는 생활 속 범죄로 나타났다.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수는 감

소했으나,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범죄 개요 △통계로 보는 공무원 범죄 △유형별 사례 △공무원 비위 사전 처리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공무원 범죄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별 교사 및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우(詐)회전지 신(新)호·속(速)위반, 중앙선 침범, 인터넷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도 직무와 무관하지만 공무원 범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기관과 학교 근무자들은 이번 안내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4차산업 특화 기술 인재 양성 '박차'

전주대, 산학융합원
입주기업협의회와 협약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학장 한동승)은 지난 14일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 및 입주기업협의회(회장 김선국)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의 성인재직자들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 내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미래트카 허브의 경우 융합원 내 최신식 정비 기반 스마트 캠퍼스 확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분야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특화 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동승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산학연 연계 과정이 탄생할 것"이라며 "전북 지역 성인재직자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석훈 원장은 "전라북도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기업, 대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14일 전북산학융합원 및 입주기업협의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국 회장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의 미래트카 허브는 성인학습자 최초 공학·인문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기

준 기술경영공과과와 문화콘텐츠학과를 기반으로 6개의 성인재직자 친화형 마이크로전공을 설계해 2024학년도에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